



4·3 생존수형인 2차 재심 시작

지법, 신속 심리 위해 7명 법정 진술 없이 녹취록 청취 일반재판 받고 옥살이 한 수형인 사건도 첫 심리 진행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에 대한 두번째 재심 청구 재판이 시작됐다. 특히 4·3때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에 대한 재심 절차도 이날 처음 시작해 관심을 끌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산 변연옥(91) 할머니 등 7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의 첫 심문 기일을 열었다. 4·3 생존수형인이 제기한 두번째 재심 청구 사건으로 지난해 1월 또 다른 생존수형인 18명은 재심을 통해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다.

재심을 청구한 수형인들은 1948년과 1949년 사이 고문과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옥살이를 했으며 다시 재판을 열어 무죄를 증명해달라고 호소했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피해자는 2530명으로 이들은 형무소로 이송된 이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 받고 형을 살았다.

앞으로 재판부는 이들 수형인의 증언과 수형인 명부, 4·3 진상조사 보고서 등의 기록을 살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특히 현재 생존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 판결문이 남아 있지 않아 관련 기록은 없어도 당시 재판이 실제

로 진행됐는지와 또 고문 등 수형인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재심 결정을 가를 주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수형인 8명 중 불법적인 군사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한 7명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듣지 않고 미리 녹취한 진술 녹취록을 제출 받는 것으로 증거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겪은 일이 지난해 1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던 18명의 사례와 비슷하고, 고령인 점을 감안해 법정 진술을 생략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군사 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은 김두황(92)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듣는

다. 김 할아버지는 1948년 11월 서귀포시 성산면 난산리 자택에서 경찰에 끌려갔으며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일반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다른 수형인과 달리 일반 재판을 받은 김 할아버지에 대한 판결문은 현재 남아 있다. 김 할아버지는 구타와 모진 고문을 당했다면서 당시 재판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이날 심리에서는 지난 4월 재심 준비 도중 별세한 고(故) 송석진 할아버지의 유가족과 행정불명 수형인의 유가족 등이 청구한 재심 사건도 다루어졌다.

한편 제주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이날 심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4·3 당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 촉구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재심을 청구한 4·3 생존수형인들이 15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40대 女 바다서 숨진채 발견

이호테우해변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3분쯤 제주도 이호테우해변 이호 조종면허시험장 앞 5m 해상에서 한 서핑객이 의식을 잃은 변모(45·제주시 연동)씨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변씨는 낮 12시4분쯤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육상으로 인양된 상태였다.

해경은 “현장에 도착했을때 변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며 “주변인들을 상대로 사망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하도리서 상팽이 사체 발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굴동포구 인근 갯바위에서 해양보호 생물종인 상팽이 사체가 발견됐다.

15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마을 주민이 굴동포구로 가던 중 해녀탈의실 뒤편 약 70m 지점에서 상팽이 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상팽이는 체장 174cm, 둘레 86cm로 무게는 약 45kg에 달하며 부패가 상당히 진행 중이었다.

해경은 “상팽이 사체에서 불법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시, 파손 맨홀 정비

제주시는 도로에 파손된 채 남아 있는 맨홀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사업비 9900만원을 투입해 맨홀 60개를 정비할 예정이다.

파손된 맨홀은 통행하는 차량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차량 통행시 소음과 진동을 일으켜 주변 주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량 맨홀 정비로 각종 안전사고와 통행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함덕리 해녀 성게작업 15일 제주도 조천읍 함덕리 해녀들이 마을어장에서 갯 채취한 성게에서 알을 꺼내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 해수욕장 7월 1일 개장... 방역 '비상'

도, 코로나19 대응반 구성 방역요원 배치·하라인 구축 야간운영은 하지 않기로 물놀이사고 예방도 집중

제주도내 해수욕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일제 개장한다.

운영 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제주도 7개소(협재, 금능, 광지, 이호테우, 삼양, 함덕, 김녕), 서귀포시 4개소(신양섭지, 표선, 중문새마을, 화순금모래) 등 도내 11개소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개장은 운영되지 않는다.

다만 매년 야간개장을 했던 협재, 이호테우, 삼양, 함덕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마을회의 요청으로 기존 야간개장 운영기간이었던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오후 8시까지 1시간 연장 운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청 제1청사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관리 및 개장기간, 안전 관리 등 2020년 해수욕장 운영사항 등을 확정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도는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반을 구성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객 일지 작성, 방역관리요원 배치 및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구축 등 대응 전략을 포함한 제주형 대응계획을 마련했다.

해수욕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행정·민간안전요원 등 총 278명의 안전요원을 도내 11개 해수욕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에서는 연안 물놀이 안전사고를 집

중 관리하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는 소방을 중심으로 행정이 주관하기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상어 출현에 대비해 상어 퇴치를 제주도 3개소 서귀포시 1개소로 확대·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개장기간이나 시간외에 해수욕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양수산부의 상시입수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해 인명구조함, 입수주의 안내표시판 및 위험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순찰을 담당하는 해수욕장 안전지킴이를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계획의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 사항 등은 도내 해수 및 담수 풀장에 준용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안전장비 확보와 코로나19 대응계획 시행을 위한 합동 사전 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태윤기자

해경, 장마철 연안 안전사고 '관심' 단계 발령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장마철 연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부터 7월 12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의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는 연안 해역 또는 위험 구역에서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 재난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 국민에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로, 관심, 주의보, 경보로 단계를 나눠 발령한다.

최근 장마철 짙은 안개로 인해 연안 해역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졌으며 낚시객, 레저활동객 증가로 갯바위나 선착장에서 추락·고

립 사고, 해상에서 방향 상실에 의한 표류 등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귀포 해경은 위험 예보 기간 중 연안 해역 순찰을 강화하고 육의 전광판, 순찰차 등을 활용해 홍보와 안전제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도 해양활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도영기자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원터프린스 - 연내 수확이 가능한 겨울 과일 시장의 새로운 맛!
- 미니향 - 적은 감귤이 맛있다! 고품질 소과형 감귤!
- 제라온 - 산함량 및 당도가 높으며 향기가 진한 레몬 (국내산 레몬)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탐나는봉 - 당함량이 높고 산함량도 높은 고품질 과실품종

과수농가 보급 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실생, 궁천, 흥진, 남진해, 신애감, 탐나는봉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 하귤, 팔삭, 새마늘,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나몬, 탕자모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JEJU HALLA PARK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64-782-2479 / 010-4736-2479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유라실생 접수분양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유라조생 2년생 특묘 사전계약 안내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원터프린스, 제라온(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유라실생, 하레조생, 궁천, 궁천변이지 (2년생 이상 100% 이삭한 묘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원터프린스 · 미니향 · 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궁천변이지
- 천천(가와대) 온주 (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